

‘삶의 십자가’ 포기하지 않는 노력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성당 사순 특강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천주교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사순 특강에서 김주영 시몬 주교(춘천교구장)가 신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천주교회(주임 김현국 사도요한 신부) 사순 특강이 지난 13일 오후 8시부터 개최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사순 특강에 트라이밸리 한인 본당 신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부활 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에서 김현국 신부는 (1) 주님의 수난과 죽음 (2) 주님의 부활 (3)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 신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지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며 매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고 협력하고자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한 수강자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내가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성령의 이끄심 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버텨 내는 삶이 부활의 삶을 깨달았다.”며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특강을 개최해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사순 특강에는 지난 1월 한국 춘천교구의 새 교구장으로 착좌한 김주영 시몬 주교가 한국 현지에서 참여해 트라이밸리 공동체와 첫 인사를 나누며 교우들을 격려했다. 김주영 주교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렵고 소외 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특강에 참가한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출처: 2021년 3월 28일자 미주 가톨릭평화신문 1면